

## 침을 뺐었다

어떤 공원에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.

‘공원 내에서 침을 뺐으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’

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침을 뺐었다. 그러자 감시원이 달려와 10만 원 벌금을 내라고 했다. 우연히 침 한 번 뺐은 것을 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하니 내키질 않았다. 그는 안 뺐었다고 우겼으나 감시원이 증거를 들이대며 말했다.

“그럼, 이건 침이 아니고 뭘니까?”

그러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.

“그냥 흘린 건데요!”

이 얼마나 재치 있는 유머인가. 침을 뺐지 않았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흘렸다는 유머에 감시원도 웃고 말았다. 이것이 유머의 힘이며, 설득의 기술이다.